

# 중진공 김학도號 출범... 디지털 중무장 벤처혁신 '비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김학도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박영선과 중기부서 11개월 호흡  
중기부 산하 최대기관... 역할 막중  
"중소벤처 혁신성장 견인" 청사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1년 가까이 보좌를 맡았던 김학도 전 차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박영선 장관과 김학도 신임 중진공 이사장의 '케미'가 어떻게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중진공은 제18대 김학도 이사장이 19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41년간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역사를 이어받아 중진공을 대한민국 최고의 중소기업 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이끄는 견인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이 중진공을 향후 3년간 이끌어갈 임에 따라 박 장관과 정책 공조를 통해 중소기업분야에서 어떤 결과를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왼쪽)이 19일 경남 김해에 있는 중소기업 아스픽을 방문해 이가상 대표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중진공

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기부 차관을 역임했던 김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한 박 장관과는 11개월 가량 중기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중진공은 중기부 산하 최대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고 있는 소상공인 영역을 제외한 스타트업, 소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자금, 판로, 인력, 수출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때문에 박 장관이 틈만나면 강조하

고 있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선 중진공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다.

박 장관은 최근 산하기관장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단체카톡방)을 통해서도 '디지털' 관련 화두를 자주 던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당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대응이 중요하겠지만 뒤이어선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것이 (기관의) 큰 미션이

될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선 (장관이 강조하는) 'DNA 코리아'를 통해 결국 중소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실제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하면서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한 제조혁신과 일자리 창출 ▲사업 효과성·효율성 강화로 혁신성장기업 육성 ▲전문역량 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조직성과 향상 ▲현장소통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 경영을 중진공의 4대 혁신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친환경 분야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AI, 빅데이터, 스마트제조 등 신산업 분야를 업종별로 집중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김 이사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소기업이 나아가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선 사업, 고객서비스, 조직·인사 등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담반을 꾸려 '100일 혁신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김 이사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아스픽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으로 취임 첫 일정을 시작했다.

아스픽은 코로나19로 매출이 35%나 감소하는 등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에서 직원 120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연근무제와 일학습병행제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아스픽 이가상 대표에게 "코로나19로 수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고용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앞으로 현장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고객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사업과 서비스로 실현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이사장은 행사 31회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대변인, 신산업정책관, 통상교섭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중기부 차관 부임 직전엔 한국산업기술평화위원장을 맡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中企협동조합, 지방경제 활성화 앞장

지자체 조례 기초지자체까지 확산  
김기문 회장 추진... 충북·여수 도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이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최근엔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 활성화 주체로 탄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협동조합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는 현재까지 총 15곳에 이른다.

지난해 8월 충북이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도 잇따라 조례 제정을 마무리지은 것이다.

첫 테이프를 끊었던 충북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58년 만이다. 충북은 김기문 회장의 고



향이기도 하다.

조례를 근거로 중기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질적 사업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이달 1일 '부산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엔 ▲중소기업 협업추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돼 있어 현장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이같은 움직임 역시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 역시 중기 협동조합 역사상 최하다. 부산시에 이어 지난 8일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시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지난 8일 전남 여수시가 처음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여수시의 경우 산업단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이 위치해 있다.

여수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하진 여수시의회의원은 "중기협동조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조직화해 개별 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각종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며 "60년간 축적한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하면 지방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례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김 회장은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은 만큼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 홈쇼핑 방송

롯데홈쇼핑서 첫 선... B2C 공략

보일러회사 귀뚜라미가 가정용 창문형 에어컨으로 소비자들을 추가 공략한다.

귀뚜라미는 센추리,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등 냉방 계열사를 통해 상업용 에어컨 시장에서 쌓은 기술력으로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넘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19일 롯데홈쇼핑을 시작으로 TV홈쇼핑 방송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첫 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추가 비용 없이 해피콜 안내 전화 후 2일 이내 100% 방문 설치하는 '프리미엄 맞춤형 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카드 5% 청구 할인, 12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와 추첨을 통해 구매 고객 10명에게 1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적립금 경품 혜택도 준다.

'귀뚜라미 창문형 에어컨(모델명 KWC-060R)'은 강력한 냉방 능력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의 정격냉방 능



력은 2450W로 홈쇼핑 판매 창문형 에어컨 중에서 가장 높다. 기존 창문형 에어컨의 냉방 능력이 2100~2300W 수준이므로 더욱더 빠르게 시원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절전 효과가 우수한 인버터 압축기를 적용해 냉방 설정 온도에도 도달하면 최소 운전을 실행하고, 실내 온도에 따라 풍량을 1~3단계로 자동 조절해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켜준다.

이밖에 응축수 자연 증발 기술, 제습 모드, 취침모드, 송풍모드, 예약기능, 자가진단 등 다양한 편의 기능까지 갖췄다. 가격은 69만9000원이다. /김승호 기자

## 중기중앙회 "가업승계 입문부터 심화까지 교육"

'차세대 CEO 스쿨' 운영

중소기업중앙회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CEO 및 승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2020년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CEO스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시작한 '차세대 CEO 스쿨'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CEO를 육성코자 마련된 교육으로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명문장수기업 포럼 그리고 일일 가업승계 워크숍으로 이뤄져있다.

'입문과정'은 가업승계 지원제도·절차 및 세무·법무 등 기초지식을 이틀간 학습하는 과정으로 참가비는 무료다.

'심화과정'은 가업승계에 대한 심화

학습 및 승계예정자간 정보공유를 필요로 하는 교육생이 대상이다. 경영컨설팅, 우수가업승계 사례분석, 경영·경제 트렌드 및 가업승계 기업인과의 간담회 등의 내용을 11주 동안 학습하며 교육비는 100만원이다.

'명문장수기업 포럼'은 입문~심화과정을 수료한 이후 지속적으로 후속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경영환경 및 가업승계 관련 최신이슈, 동·이업종 중사자간 정보공유 등을 주제로 연 6회 개최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김승호 기자

## 동화기업, 상반기 대졸 신입·인턴 등 모집

동화기업은 2020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및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졸 신입사원 모집 부문은 ▲화학영업 ▲생산시설관리 ▲품질관리 ▲보드화 학생 ▲전략마케팅 ▲S&OP(세일즈&오퍼레이션) ▲ERP 등 총 7개 분야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은 디자인 분야에서 모집한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은 실습 종료 후 심사를 통해 채용 혜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격 요건은 국내외 4년제 이상 졸업자 또는 2020년 8월 졸업 예정자로 해외 여행 및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한 TOEIC, TOEIC 스피킹, OPI C 등 공인어학성적을 보유해야 한다.

채용 전형은 ▲서류 심사 ▲인적성 검사 ▲직무 면접 ▲인성 면접 ▲최종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중순 예정돼 있으며 서류 접수는 6월 17일 밤 자정까지다. /김승호 기자